

보도일시 | **2024년 7월 29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명 | 경영지원팀

담당자 | 김도훈

연락처 | ☎052-226-0019

## 장생포문화창고 개관 3주년 누적 관람객 43만 명 돌파 주민을 위한 문화 향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고래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장생포문화창고가 2021년 6월 개관 이후 3년 만에 누적 관람객이 43만 명을 돌파했다.

고래문화재단이 지난 7월 21일까지 장생포 문화창고를 찾은 관람객을 집계한 결과 431,181명이 방문했으며, 이는 상반기 9만여 명이 방문해 전년 대비 17% 증가한 추세를 볼 때 연말까지 누적 관람객이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 재생 사업으로 재 탄생한 장생포 문화창고는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남구에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며 개관 3주년 만에 43만 명이 방문하는 핵심 문화공간으로 도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창고에서 운영된 공연은 지난 22년도에 44회 실시해 3천 804명이 방문했으나, 지난해에는 92회, 8천621명으로 209% 늘어났으며, 올해는 상반기에 만 3천370명이 방문해,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창고 전시공간은 대한민국 산업의 출발을 알리는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관’과 미디어아트 전용관, 3개의 기획전시관이 있다.

미디어아트관은 지난해 <구스타프 클림트, 황금빛으로 물들이다>에 이어 올해는 인상파 시리즈로 세잔과 모네, 고갱 등 3명의 거장 작품을 상영했거나 상영을 진행 중이다.

전시관에서는 대한민국 미술계의 트렌드를 이끄는 작가들을 초청하고, 가족

을 위해 그림책 원화 시리즈를 전시하고 있고, 오는 9월 울산고래축제기간에는 울산미술협회와 공동으로 ‘고래축제와 함께하는 글로컬 아트마켓’이 열린다.

지난해 11월 시작한 영화 아카데미 ‘씨네 창고’ 시즌 1은 ‘천만 관객 감독’으로 유명한 이준익 감독과 김성수 감독이 자신의 영화를 상영하고 관객과 대화를 나눈 ‘GV’와 단편영화제작을 교육하는 ‘단편영화 제작 워크숍’, 영화 속 고래의 의미를 인문학적으로 접근한 평론가 정민아(성결대 교수)의 강의 등 3가지 행사가 진행됐다.

영화 아카데미 ‘씨네 창고’ 시즌 2인 올해는 단편영화제작 워크숍을 단편영화 제작 과정에 수강생들이 스태프로 참여시키는 형식으로 진행해 ‘아무도 모른다’, ‘안녕 첫사랑’, ‘코로나시대의 사랑’ 등 20여 분 길이의 단편 영화 3편을 제작했으며, 지난 18일 장생포문화창고 소극장W에서 시사회를 열었다.

특히 이번 단편영화는 울산고래축제 기간에 장생포문화창고 소극장과 장생마당에서 상영하고, 감독·배우 GV(관객과의 대화) 등 다채로운 축제 프로그램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하반기에는 감독영화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어린이 상설공연인 해외 2개 작품 <그림자와 나>, <조지아>과 국내 2개 작품 <고래바위에서 기다려>, <쿵쿵쿵>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다음 달에는 가족 관람객을 위한 여름방학 특별 콘텐츠 ‘2024 장생포 애니메이션영화제’를 개최한다.

상영 작품은 4개국(스페인, 프랑스, 일본 등) 장편 10편과 단편 모음 2편이 상영되며, <소중한 날의 꿈> 안재훈 감독, <스트레스 제로> 이대희 감독의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되고 실시간으로 ‘애니메이션 더빙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밖에 문화창고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 공간도 개관 이후 ‘화가의 방’과 ‘박스아트’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26,698명이 체험했으며, 10여 개의 문화예술프로그램(팝아트 초상화 그리기, 색 놀이터, 물레 체험 등) 등 3개 상주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 22년 5월에 개설한 시민 음악 아카데미는 바이올린과 드럼, 색소폰반 8강좌에 분기별로 52명을 모집해 전 과정 정원 마감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개인이나 동아리, 밴드 등이 연습할 수 있는 음악연습실은 상반기 이용 실적이 525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18%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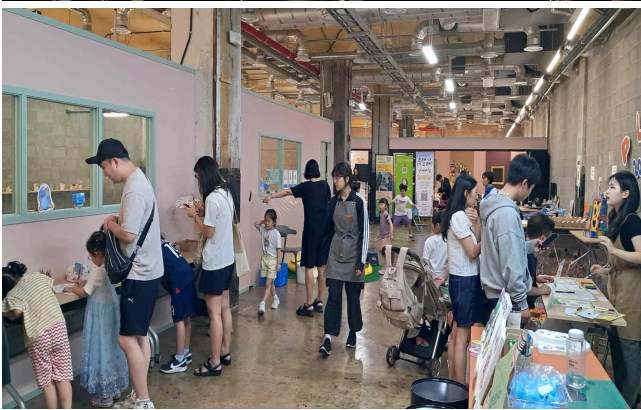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등에 3건(1억 3천여만원)과 문화도시 울산 구군 특화사업 3건(1억 9천여만원) 등 다양한 공모사업이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

고래문화재단 이사장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은 “문화창고 건너편 SK 저류탱크를 활용해 미디어 파사드를 운영하고 홀로그램과 LED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전시를 진행하는 등의 시대를 앞서가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생포문화창고는 개관 2년 만인 지난해 문화체육부의 ‘지역 명소 로컬 100’에 선정됐으며, 행안부의 ‘지방자치경영대전 문화행정 부문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래문화재단 전시기획팀 박소정(☎ 052-226-001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7. 25.

등록번호 : 고래문화재단-6855

결 재	★대리	총괄주무관	상임이사
	김도훈	전순배	전결 07/25 대결 김인철